

전남광주시, 내년부터 특행기관 5곳 사무 넘겨받는다

광주전남중기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목포해수청·광주순천국토사무소
2028년 영산강청 2개 사무 추가 이관
시·구·군 분권 사무도 1천260개 분류
재정 배분 손질·균활기금 1천억 구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부터 중앙정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5곳의 사무를 단계적으로 넘겨받는다. 2027년 4개 기관의 14개 사무를 시작으로 2028년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 2개 사무까지 이관 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권한을 확대한다.

15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특별시는 정부의 '5급 3득 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중앙부처 권한 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지방 이관, 시·구·군 간 사무 재배분 등 3대 자치분권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역 관련 사무를 2단계에 걸쳐 지방정부 소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 대상은 2027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광주·순천국토관리사무소 등 4개 기관의 14개 사무다. 2028년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 2개 사무를 추가로 넘겨받을 예정이다.

특별시는 중앙부처가 담당하던 지역 행정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방침이다.

중앙부처의 핵심 권한 44건에 대해서도 이양 절차를 거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시가 맡은 사무 가운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업무를 시·구·군으로 분산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 사무는 업무 성격과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내년부터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인력과 재정을 함께 조정해 단계적으로 권한을 분산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권한과 재정의 분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창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법과 행정에 의해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무 이양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시의 구체적인 권한 이양 방안을 물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선거 때부터 말씀드렸고 취임하자마자 시·구·군으로 이양해야 할 사무를 추리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현재 1천200개 정도를 대상으로 사무만 조정하면 되는 경우와 재정이 함께 따라야 하는 경우 등을 분류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 시장은 또 "이양 대상 사무를 3단계로 구분해 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재정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분산·분권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시·구·군 간 재정 배분 기준을 손질하고 별도의 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 시장은 "예 전남도와 광주시의 교부율이 다른 만큼 우선 이를 조정하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전남광주형 균형발전지수 등 지표를 개발해 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기금은 내년에 1천억원 정도로 시작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을 계속 적립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23회 호국영령추모제 15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제23회 호국영령추모제가 열려 참석자들이 추모제례(追慕祭禮)를 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광주 시내버스 31일 노선개편...시설물 정비

103→115개...‘알리미’ 140명 활동
19일부터 96개동 찾아가는 안내 등
버스 행선판 순차 교체...‘미리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31일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을 앞두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안내와 버스 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15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이번 노선개편은 9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전체 시내버스 노선은 기존 103개에서 115개로 12개 늘어난다. 하루 운행횟수도 8천394회에서 8천929회로 535회 증가한다.

특히 교통카드 빅데이터와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간선노선 직선화, 교통수요 변화 대응, 혼잡 중복 장거리 노선 조정 등에 중점을 뒀다.

전남광주시는 누리집, 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변경노선을 다각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16일부터 정류소와 버스 내부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노선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시설과 공동주택에는 안내문과 노선도를 비치하고 홍보영상도 송출한다.

이와 함께 광주자원봉사센터,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력해 ‘노선개편 알리미’ 140명을 운영한다.

이들은 오는 19일부터 11일간 96개동 경로당

과 교통취약지역을 찾아가 변경노선을 안내하며 개편 시행일 전후 5일간 역·터미널 등 주요 거점 20곳에서 현장 안내를 지원한다.

시설물 정비는 교체에 시간이 소요되는 버스 행선판을 시행 2주 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노선번호판은 개편 시행일인 31일 교체한다.

이에 따라 일부 버스는 기존 노선으로 운행하면서도 개편 후 행선지가 표시될 수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노선 개편에 따른 차량 재배치로 일부 버스는 노선 유형과 차량 색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특별시는 시민들에게 행선판 사전 교체와 일부 차량의 색상 불일치에 유의하고 탑승 전 노선번호와 행선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1면 ‘호랑이군단 가을야구’서 계속

준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팬들의 관심은 입장권 예매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1차전 입장권예매는 30분만에 온라인 예매분이 모두 소진됐다.

지역민들의 응원 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KIA는 오랜 기간 전남광주를 대표하는 프로야구단으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물론 가정과 음식점, 주점 등에서 중계를 지켜보는 팬들까지 더해지면서 포스트시즌의 열기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지역 상권도 가을야구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말 경기인 데다 광주에서 1·2차전이 연이어 열리는 만큼 경기장 주변 소비도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구 중계를 시청할 수 있는 음식점과 주점 등은 단체 손님 유입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치킨과 피자 등 패스트푸드 업소와 편의점 등 역시 집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집관족’ 수요에 따른 가을야구 특수를 한껏 기대하는 분위기다.

2년 만에 다시 찾아온 가을야구 무대다. KIA가 홈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등에 업고 첫 경기부터 기세를 올려 플레이오프 진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지 전남광주 지역민들의 시선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로 향하고 있다.

“정부 교육교부금 축소 개편안 철회해야”

전남광주 교육·시민단체 촉구

전남광주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저지를 위한 전남광주 긴급행동’은 15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인다는 발상은 교육의 본질과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교육교부금 축소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재정은 학생 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축소하는 예산이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해야 할 공적 자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긴급행동은 “전남광주는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해 교육 여건

격차가 큰 만큼 교육재정 축소 시 작은 학교의 존립과 공공성을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국가 정책 방향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또 “이번 기회를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전환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교육 주체들과 협의하고 국회는 학생 교육권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법인은 2026년 09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6년 10월 08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농업회사법인 송죽 주식회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경양로 170, 701호 (중흥동)
청산인 김 보 현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법인은 2026년 09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6년 10월 08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농업회사법인 해남김 주식회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경양로 170, 406호 (중흥동)
청산인 김 보 현

합 병 공 고

(채권자 의의서 제출공고)

세원건설 (주) (이하 "갑"이라한다) (주) 국제이엔씨 (이하 "을"이라한다)은 2026년 10월 14일 "갑"의 사무실에서 개최한 양 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번호:부산수업2016-01-02)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전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포괄적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흡수합병하고, "갑"·"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분할 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공고함.

2026년 10월 16일

(갑) 상호 : **세원건설주식회사**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령로 도덕면 학동2길15-1, 2층 201호

대표이사 : 안 은 정

(을) 상호 : **주식회사 국제이엔씨**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영강길8 (삼영동)

대표이사 : 김 종 구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5항 5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1. 발전사업의 명칭	태선 13호 구에 병서 태양광발전소
2. 발전사업의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구례읍 청서리 1917 일원
3. 발전사업의 면적	11,779㎡ (약 3,563평)
4.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1) 발전용량 : 1,865.44kW 2) 설비개요 : 태양광발전소 3) 추진계획 : 27년 착공, 28년 상용운전 4) 사업운영기간 : 20년간 운영 예정
5.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주)태라3발전 (최대주주 : 오진택)
6.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1)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 2)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5, 1203호 (가산동) - 전화 : 010-2443-8897 - 팩스 : 02-832-0206 - 메일 : yulara@naver.com

광주지방 중대범죄수사청인접 부동산 매물들입니다

1) 매매{매가11억}중흥6거리 광장코너 땅상업지 대지93평

2) 매매{4억5,000}중수청인접 대69평4층건물 월세330만원

3) 매매{13억5,000}중수청인접 대지193평 단층건물 평당700

법률사무실, 커피, 카페, 음식점 최적

4) 매매{2억8,800}중흥6거리 인접 대지64평 평당450만원

5) 임대 중수청인접 대로변 1층90평(면적분할가)

법무사, 변호사사무실 최적

6) 임대 중수청인접 대로변코너 2층70평(면적분할가)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기임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228-0990, 010-4601-1390